

우리는 무엇을 먹고 마시고 탐닉했나

소비의 한국사

김동주 외 4인 | 서해문집 | 2만1000원



일상을 지탱하는 생필품 구매에서 욕망을 파고드는 중독적 소비까지, 근현대사 속에서 살펴본 소비하는 한국인의 일상과 욕망을 서술한 색다른 한국사 책

이 나왔다. 쌀·물·라면·커피·부동산·가전제품·술 등 생존에 꼭 필요한 생필품부터 사회 변화에 따라 일상적 소비재가 된 것들까지 젊은 역사학들이 모여 한국의 소비사를 추적했다.

오늘날엔 쌀밥을 먹지 못해 굶주리는 사람이 거의 없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밥 굶던 시절을 이야기한다. 책의 첫 장 ‘밥 없이는 못 살아, 정말 못 살아’에선 ‘밥 없이 살 수 없는’ 한국인들의 쌀밥을 향한 유별난 애정을 살피고, ‘가족과 함께 흰 쌀밥을 먹고 싶다’는 열망이 한 시대를 이끈 동력이었다고 말한다.

쌀에 이어 ‘물의 무게와 소비, 물장수부터 생수 배달까지’에서는 물장수에게 물을 사 먹던 시절부터, 수도물을 처음 이용하게 된 일제시기를 거쳐, 생수를 집 앞까지 배송해 먹는 현재까지 한국인의 물 이용 역사를 들여다보며 ‘물장수’와 ‘생수

배송’ 사이, 세기를 넘어서는 기시감을 이야기한다.

‘라면 시장의 맞수, 삼양식품과 농심의 혈투’는 탄생 이후부터 현재까지 각광받는 음식인 라면의 역사를 다룬다. 특히 라면 산업의 양대 산맥인 삼양식품과 농심의 라면 개발부터, 라면으로 인한 기업의 흥망성쇠까지를 아우르며 한국 현대사를 살펴본다.

밥과 물, 그리고 라면을 먹은 뒤 누구나 손쉽게 접하는 커피를 현대사 속에서 살펴본 ‘누구나를 위한 같은 맛의 한 잔’이 이어진다. 미군 부대에서 몰래 빼돌려 먹던 커피가 커피믹스로 재탄생하는 과정을 통해 커피가 어떻게 현대 한국인들에게 인기 있는 먹거리가 되었는지를 흥미롭게 보여 준다.

‘주소를 소비하는 사람들’이라는 부제가 붙은 ‘당신이 꿈꾸 은 강남의 탄생’은 중요한 소비재이자 투자처가 된 ‘집’ 소비의 역사를 정리해 본다. 그중에서도 강남으로 대표되는 신도시 개발의 역사를 살펴봄으로써 현대 한국인의 욕망을 파헤친다.

집을 소유하게 되면 가장 먼저 소비하게 되는 물건이 가전제품일 것이다. ‘마, 느그 집에 냉장고 있나?’는 냉장고, TV, 세탁기, 청소기 등 현대인의 필수 가전제품이 어떤 과정과 욕망을 배경 삼아 소비

되었는지를 이야기한다.

‘우리는 취하고 싶다’는 밥과 물, 라면과 커피에 이어서 또 다른 먹을거리로서 술을 다룬다. 일반적이지 않은 소비재로서 술이 어떤 이유로 한국인들의 정서적 목마름을 해소해 주고, 현대사와 함께해 왔는지를 뜯어본다.

앞선 글들이 주로 생필품 또는 일상에 관련된 소비를 다루었다면, 이어지는 글들에선 소비자들의 감정적 욕망이 좀 더 투영된 소비를 이야기한다. 음악·영화·관광·교통·장난감·도박·마약 등 일상과 큰 관련이 없어도 무방하던 것에서, 없어선 안 되거나 중독에서 헤어 나오기 힘든 존재가 된 것들이 주 제다.

‘무지갯빛 1980년대, 대중이 음악을 소비하는 방법’은 1980년대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음악을 소비함으로써, 무채색의 시대 속에서 어떻게 무지갯빛으로 살았는지 살펴본다.

OTT를 비롯한 온갖 볼거리가 풍족해지고 극장이 사라지고 있는 현재, ‘그때 그 시절, 극장에서 우리는’에서는 극장과 영화를 통해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여가 시간을 즐기고 소비했는지를 보여 준다.

‘판매와 소비 욕망의 용광로, 관광의 시

간’은 음악과 영화에 이어 대표적 여가 생활인 관광을 살펴본다. 근현대를 거치며 점점 산업화한 관광의 역사를 통해 관광을 소비해 즐거움을 얻으려는 대중은 물론 관광으로 수익을 내려 한 국가의 욕망까지를 아우른다.

‘개발 욕망의 집결지, 기차역을 둘러싼 갈등’은 일제시기 경북 문경의 ‘점촌역’ 개설 사례를 통해, 근대 교통의 중심인 기차역이 사람들의 욕망과 갈등을 어떻게 극대화했는지 보여 준다. ‘노오력에서 재미로’에선 ‘한국 장난감의 생산과 소비의 역사’라는 부제처럼 한국 현대사 속에서

장난감산업이 보여 주는 경제개발의 쓸쓸한 이면을 이야기한다.

끝으로 ‘불법과 합법의 경계 속 투기와 도박’과 ‘왜 나는 마약을 소비하면 안 되나’로 이어지는 두 글에선 ‘욕망을 자극하는 중독적 소비’로서 도박과 마약을 다룬다. 현대사 속에서 불법과 합법의 애매한 위치 속에 자리한 도박과 마약을 소비하다 못해 중독되어 범죄자가 되는 사람들과 이를 단속하고 처벌하는 국가의 관계를 뜯어봄으로써 현대사의 어두운 자화상을 살핀다. **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



내연남의 죽음…심리적 불안 속 진실에 대한 갈등

나에게 진실이라는 거짓을 맹세해

헬레네 플루드 | 푸른숲 | 1만9800원



아파트 이웃 중 한 사람이 살해당했다. 경찰은 이웃 중 범인이 있다고 단언한다. 나머지 이웃 모두가 그 사건의 용의자로 의심받는 상황이라면 과연 누구를, 무엇을 믿어야 할까. 불륜 상대인 요르겐이 죽은 후 주인공 리케에게 끝없는 난관이 이어진다.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의 포위망은 점점 좁혀지고,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진실을 털어놓아야 한다. 과연 연제, 어디까지 진실을 말해야 할까.

자상하고 헌신적인 남편 오스먼드에게 요르겐과 바람피웠다는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까? 이웃과 딸에게는? 말하지 않을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은 없나? 이 사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어떻게 진술해야 경찰이 가족들을 용의선상에서 배제할까? 그리고 요르겐이 죽어 있던 그날, 리케가 여분의 열쇠를 사용해 몰래 그 집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누군가 알고 있다면? 평소 알게 잠드는 편이었는데도 사건이 일어났던 밤에는 어떻게 그렇게 깊게 잠들었을까? 이웃 중 대체 누가 요르겐을 죽였을까? 여러 의문과 갈등만이 이어지는 가운데, 리케는 결국 진범의 정체를 알아낸다. 그렇지만 진실은 절대 그 선에서 끝나지 않는다.

자신의 불륜 사실을 공개할 것인지, 남편이 살인 사건 용의자로 지목되도록 둘 것인지. 어느 쪽을 선택하든 완벽하고 단란한 가정을 지켜낼 수는 없다. 이러한 극

도의 불안 속에서 리케는 범인을 찾아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 강박적으로 이웃들을 의심한다. 사실 리케에게 이웃 중 누가 범인인지, 왜 요르겐을 죽였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이 어떻게 진실이 되느냐, 그것뿐이다.

“가급적 상황을 그럴 듯하게 얼버무”리고 “사실을 조금만 고쳐 쓰면” “그 즉시 모순된 조건들 또한 진실이 될 수 있다”는 리케의 말은 진실과 거짓이 교차하며 만들어 내는, 진실조차 거짓이 되어버리는 지점 그리고 아무것도 믿을 수 없는 혼란으로 독자들을 이끈다.

심리학 박사라는 작가의 이력답게 ‘나에게 진실이라는 거짓을 맹세해’는 진실에 관한 모순을 날카롭게 찌르는 심리 스릴러 소설이다. 죄책감과 수치심에 대한 설명은 독자가 인물들의 모순된 태도에 몰입하고 스스로를 대입하게 이끈다. 또한 독자들에게 두 감정이 인간의 태도와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간접적으로 경험하도록 하며 등장인물들의 내면과 숨겨진 동기를 들춰보게 만든다. 불안감과 긴장감이 옥죄는 가운데 숨겨진 진실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갈수록 묘한 쾌감이 밀려온다.

독자는 작품 내의 등장하는 모든 것을 의심하게 된다. 심지어는 서술자이자 주인공인 리케까지도. 혼란에 사로잡힌 리케가 인지하고 있는 것들이 과연 사실일까? 편견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바라본 사실도 진실이 될 수 있을까? 이 작품은 이렇게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질문이자 답변이 된다.

도선인 기자

아들이 사는 세계

류승연 | 푸른숲 | 1만8800원



최근 개봉한 영화 ‘그녀에게’의 원작 책 ‘사양합니다, 동네 바보 형이라는 말’을 쓴 류승연 작가가 그다음 이야기를 엮은 ‘아들이 사는 세계’가 출간됐다.

첫 책이 발달장애인을 양육하며 장애에 이야기를 물 밖으로 고집하던 것이었다면, ‘아들이 사는 세계’는 발달장애인인 아들이 부모의 품을 벗어나 어떤 성인기 삶을 맞이해야 할지, 학령기인 지금 어떤 것들을 배워야 성인이 됐을 때 제대로 된 자립생활을 할 수 있을지 고민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취재 과정을 담고 있다.

한국미의 레이어

안현정 | 아트레이크 | 3만2000원

한국미를 떠올리면 다양한 것들이 떠오르지만 크게는 하나의 주제로 묶이기 쉽다. 바로 전통. 하지만 한국미는 역사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저자 안현정은 한국미를 ‘이 땅에 살며 스미듯 이어온 한국인의 독특한 활력’이라 말하며 과거에만 있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이어져 현재까지도 활발한 세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한다. 저자 안현정은 현재 성균관대 학예실장(박물관·미술관 1급 정학예사)으로 한국미란 무엇인가에 대해 일반적으로 모호한 개념을 나열하는 것이 아닌 26점의 문화재와 26명의 현대 작가를 매칭해 보다 많은 사람이 한국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했다.

자립이 가능하려면 학령기인 지금부터 ‘관계 맺기’가 잘돼야 한다. 발달장애인의 삶은 궁극적으로 ‘나 혼자 산다’가 아닌 ‘타인의 도움을 받아서 산다’가 돼야 한다.

이를 위해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익숙해하는 가족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람, 새로운 환경을 받아들이는 능력을 체득해야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

저자는 자신의 양육 경험과 취재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위해서 갈등 상황을 마주하는 법, 자신의 선택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 정해진 루틴은 지키되 돌발 상황에 ‘문제행동’ 없이 대처할 수 있는 관계와 상황에서 배울 수 있는 모든 경험을 학령기인 지금부터 해야 한다고 말한다. 기꺼이 타인의 도움을 받고, 어울리고 싶고, 타인과 어울릴 줄 아는 사람이 되는

연습을 일찍이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한 교육과 제도적 시스템에 대한 제안을 건넨다.

여성학박사 정희진 작가는 이 책에 대해 “비장애인의 좁은 시각에 대한 도전으로, 비장애인이 상상할 수 없는 발달장애인의 성인기를 두텁게 묘사해 삶, 세계, 인간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켰다”며 “사유의 재구성고 깨달음이 함께하는 역동적인 독서 체험에 뛰어들기를 권한다”는 추천을 남겼다.

책을 쓴 류승연 작가는 전직 기자로 현직 발달장애인의 엄마다. 사회부를 거쳐 정치부 기자로 6년 동안 국회를 출입했다. 그러다 결혼을 하고 쌍둥이를 임신, 비장애인 딸과 장애인인 아들을 낳았다. 발달이 느린 아들과 살면서 기다리는 법, 이해하는 법, 참는 법을 배우고 있다.

도선인 기자

더 와인

엄정선·배두환 | 시대의창 | 2만5000원

저자 부부는 ‘와인’이라는 공통의 인생 주제를 놓고 세계를 탐험하는 ‘꾼’들이다. ‘와인꾼’인 이들 ‘와인쟁이 부부’는 와인을 공부하면서 세계 곳곳의 와인 산지와 와이너리를 두루 방문하면서 내공을 다졌다. 이들이 15년 동안 축적하고 숙성시킨 자신들의 ‘와인 생활’을 이 책 한 권에 ‘병입’했다. 와인 병을 오픈하듯 책을 펼치고 가벼운 첫 장부터 즐기다 보면 어느새 와인과 음식의 조화를 맛보게 된다. 잘 빚어진 와인이 충분히 숙성되어 ‘명주’가 되듯, 저자들의 숙성된 와인 생활 노하우가 담긴 이 책은 와인을 이제 막 즐기려는 이들과 와인을 더 깊게 즐기고 싶은 이들에게 분명 꼭 필요한 안내서다.

스파이라

김아인 | 허블 | 1만4000원

소설의 배경은 에피네프라는 치명적인 전염병이 휩쓴 근미래다. 인간이 죽은 후에도 정신은 전산화되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면? 소설은 이러한 의문과 설정에서 시작해 팬데믹 상황의 디스토피아하면서도, 기술이 발달하여 제2의 가상 인생 서비스가 제공되는 세계상을 그린다. 소설은 그 정신 전산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AE라는 거대 기업을 둘러싼 인물들의 첨예한 입장 차와 대립을 다룬다. ‘디스토피아 상황에서 죽음이 없는 영원한 삶은 과연 유토피아일까?’라는 질문에 각각도로 접근한다. 웰메이드 SF 세계를 창조해 낸 작품은 놀랍도록 세밀한 짜임새와 숨막히는 몰입감을 동시에 선사한다.

